

지역 소식통

김제시, 화재예방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달 30일 시청사 방호 능력 배양과 소방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시청사 자위소방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등이 참석한 이번 훈련은 김제소방서와 합동으로 대처하는 청사 합동 소방훈련으로 실천처럼 진행되었다. 시청사 직원들은 김제 소방서의 협조를 통해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를 시작으로 굴절차를 이용한 고층 인명구조,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과 체제 확립, 초기소화와 문서 반출훈련, 인명구조 방법 등을 숙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소방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힘써 준 관계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훈련과정 중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해 더욱 실질과 같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특별 강좌
'책으로 여는 2024 만들기'

김제시립도서관은 지난 9월부터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브런치 글쓰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GPT글쓰기 등을 통한 시대 흐름에 맞는 글쓰기에 변화를 주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12월 4일과 12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2024년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책으로 여는 2024년 만들기'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 이 강좌는 독서강연, 책 토론, 워크숍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트렌드코리아 2024'와 '익숙한 것과의 결별'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트렌드 이해와 자기경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특강은 참여자들이 2023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결심과 더불어 2024년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독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자기계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례문화창고' 서울 문래동에 뒀다

완주군, 문화공간 '콜라보하우스 문래' 서 팝업스토어 운영

완주군이 서울 핫플레이스인 문래동에 뒀다. 완주군은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북합문화공간 '콜라보하우스 문래'에서 '완주여행'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례문화창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과거 양극창고를 개조해 문화·지식 재생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삼례문화예술촌, 책마을, 그림책미술관을 중심으로 완주군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군은 '창고'라는 공간의 의미를 담아 관광창고, 예술창고, 그림책창고, 도서창고, 영화창고로 공간별 콘텐츠를 구성했다.

특히, 영국 작가 '질 만'의 미공개 작품을 그림책박물관이 발굴해 세계 최초로 출판한 '요정과 마법 지팡이'를 비롯해 삼례책마을에서 전시·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중고책을 판매한다.

그림책 LP 청음실에서 LP판을 통한 음성 그림책 체험도 가능하다.

특별 이벤트로 완주 지역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도 진행한다.

12월 1일에는 '만들협동조합'에서 커피찌꺼기와 천연이끼로 크리스마스



완주군은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북합문화공간 '콜라보하우스 문래'에서 '완주여행'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리 마그네틱과 키링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총 8회 진행된다. 다음날인 2일에는 완주 쌀과 병풍 생강으로 만든 완주생강막걸리 '술령10도' 시음회와 칠링백 꾸미기 체험을 '막동막순협동조합' 청년들이 맡아 진행한다.

또한,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를 자랑하는 완주로컬푸드로 만든 과일 젤라또, 요거트, 생강과즙, 두부과자 등을 맛보고 구입할 수도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매력적인 완주의 문화·예술·관광 자원들이 새로운 시선과 감각으로 재구성돼 서울에서 선보이게 돼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리를 담은 로컬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새로운 방식의 완주여행 체험과 홍보전을 펼쳐 우리나라 최고의 감성여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달 29일 필리핀 바탕가스주 로사리오시장단이 완주군을 찾았다.

필리핀 로사리오시장단, 완주 방문

농업인력 교류 제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필리핀 바탕가스주 로사리오시장단이 완주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로사리오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레오비질도 K. 모르페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은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설명받고, 농업인력 교류를 제안했다.

또한, 이서면에 위치한 풍취팔췌 한옥리조트(회장 김매순)에서 머무르며 한옥에 대한 관심을 표명, 관광교류 활성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필리핀 로사리오시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군과 MOU를 신규로 체결

한 후 올해 처음 65명의 계절근로자를 파견했다.

완주군은 올해 필리핀 일로일로주 미나시, 포토탄시 등 5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73명이 입국해 근로했다.

특히, 불법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고 농기주와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아 선진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자 우수사례로 완주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농업과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역과도 향후 관광과 인력 교류에도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정례회 개회... 15일간 의정활동 돌입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달 30일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5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3차례에 걸쳐 본회의가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4일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11일 기획감사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등) △12일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등),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등) △13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

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14일 3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완주의 미래를 위해 군민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 행사 참여

김제시 여성농민회(회장 김영미)는 지난달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

주요 행사로 토종씨앗사업단 활동사진 전시회, 도시농업과 함께 하는 기

후위기대응, 언니네네티발과 생태농업홍보관, 토종씨앗 작물전시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과 토종종자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수확한 토종작물을 활용한 토종쌀강정과 즉석마늘 고

추장 만들기 체험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미 회장은 "한 해 동안 지역행사와 국제종자박람회 참여를 통해 토종종자나눔행사를 진행해왔다. 수확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4년 연속 지원

국내 유일 4년 연속 선정... 6700여 가구에 농식품바우처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내 유일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내에서는 김제시가 유일하게 4년 연속 공모 선정되어 관내 6,700여 가구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게 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해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산 채소·과일·육류·두부류 등 10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2024년은 시범사업 마지막 해로 사업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일 1일 가구원 수에

따라 사용 가능 금액이 충전되며 당일 사용 원칙에 따라 충전액 중 2,000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은 매일 말소된다.

관내 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GS25편의점·농특산물홍보판매장(모다점)·농협몰·남도장터 온라인몰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꾸러미 배송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영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4년 연속 공모 선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농산물 소비체계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